

## 복지의 본성

**개요:** 본 수업은 현대 복지철학의 주요 이론들을 중심으로 “무엇이 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에게 좋게 만드는가?”라는 물음을 검토한다. 복지는 윤리학과 정치철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지만, 무엇이 개인의 삶을 그 사람에게 좋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경쟁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어떤 입장은 좋은 경험이나 행복을 복지의 핵심으로 보며, 어떤 입장은 욕구의 충족, 인간적 능력의 발휘,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 혹은 주관적 태도와 객관적 가치의 결합을 강조한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주요 복지 이론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각 입장이 어떤 직관에서 출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좋은 삶을 설명하려 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각 이론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비판도 함께 검토한다. 예를 들어 쾌락만으로 좋은 삶을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지, 객관적으로 좋은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좋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삶의 판단에서 주관적 관여와 객관적 가치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나아가 본 수업은 복지의 문제가 개인적 삶의 평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복지는 도덕적 판단, 정치적 제도, 분배 정의,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후반부에서는 복지가 규범적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도덕과 정치가 오직 사람들의 삶의 질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혹은 자율성·권리·선호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목표:** 본 여름 스터디는 학부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웰빙이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스터디의 일차적 목표는 현대 복지철학의 주요 교재를 함께 읽으면서 웰빙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에게 좋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쾌락, 욕구 충족, 객관적 가치, 인간적 능력의 발휘 등 웰빙을 설명하는 여러 입장을 비교하면서 각 입장의 장점과 한계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이 스터디는 단순히 정해진 교재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더 깊이 탐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 중 읽은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해당 주제에 관한 추가 논문을 추천받아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재의 내용과 추가 문헌을 바탕으로 특정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형성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관심과 준비가 충분한 학생은 관련 주제로 짧은 연구문이나 논문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 필요한 주제 설정, 문헌 탐색, 논증 구성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스터디는 웰빙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하나의 철학적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로 발전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 철학 연구의 과정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면담:** 월요일/금요일 15 시 00 분부터 16 시 00 분까지 입니다. 5 남 223 호로 방문해 주세요. 면담을 원하시는 학생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https://calendly.com/bronzeyong-inha>

**지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위 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진행:

**수업 전** 해당 주의 읽기 과제를 반드시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계획서의 reading questions 를 참고하여, 각 질문에 스스로 답을 시도해 보면서 읽기를 권장합니다. 텍스트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1) 저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2)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3)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이 드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표시하며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낯선 개념이나 사고실험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메모를 해 오면 수업 중 토론에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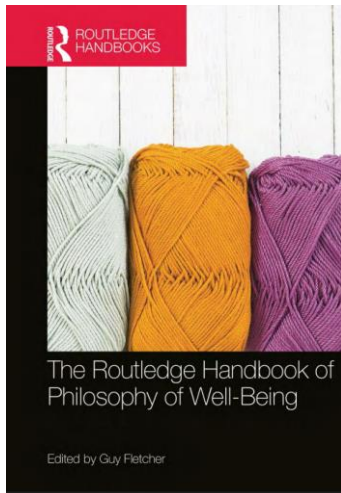
**수업 중** 수업은 발제와 논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제자는 지정된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논평자는 발제문의 주요 주장과 논증에 대해 비판적 검토 또는

질문을 제시합니다. 발제문 및 논평문의 형식은 본 계획서 말미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

- 본 교과는 패스/논패스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총 6 회의 세션 중 결석은 1 회까지 허용되며, 각 학생은 1 회 이상 발제 또는 논평을 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여름학기 연구원 활동으로 1 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 교재:



Guy Fletcher 가 편집한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Well-Being* 은 ‘좋은 삶’ 또는 ‘복지’가 무엇인지 다루는 현대 복지 철학의 주요 교재이다. 이 책은 쾌락주의, 욕구충족이론, 완전주의, 객관적 목록 이론 등 복지에 대한 대표적 입장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 일정:

	발제	논평
1 주차(6/24)		
2 주차(7/1)		
3 주차(7/8)		
4 주차(7/15)		
5 주차(7/22)		
6 주차(7/29)		

## 1 주차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9 Hedonism’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
| 1 | 저자는 쾌락주의를 “복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는 입장으로 설명한다. 이때 쾌락주의는 심리적 쾌락주의나 가치 이론으로서의 쾌락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6  | 고전적 쾌락주의는 왜 부적절한 이론으로 보이는가? 모래 샌드위치, 가려움, 메스꺼움, 우울의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 2 | 쾌락주의가 매력적인 이론으로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고문, 우울, 두통, 파티, 맛있는 음식 등의 사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7  | “돼지의 철학” 반론은 쾌락주의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이 반론에서 ‘쾌락의 양’과 ‘쾌락의 질’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3 | 저자는 왜 자동차, 태양계, 숫자 같은 대상에는 복지 수준이 없다고 말하는가? 쾌락주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8  | 밀의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의 구분은 쾌락주의를 구제할 수 있는가? 이 구분이 경험 자체의 차이에 근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4 | ‘경험 요건’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호주에 있는 형제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려는 문제는 무엇인가?  | 9  | 노직의 경험 기계 논변은 쾌락주의에 어떤 도전을 제기하는가? 경험 기계 안의 삶이 실제 세계의 삶보다 덜 좋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 5 | 저자는 넓은 쾌락주의, 고전적 쾌락주의, 고전적 쾌락주의+, 행복 쾌락주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 10 | 저자는 경험 기계 반론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거짓 쾌락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 이외의 것이 복지에 기여한다는 문제이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르며, 각각에 대해 쾌락주의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 2 주차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10 Perfectionism’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1	완전주의(perfectionism)는 인간의 복지를 무엇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이론인가? 여기서 “인간에게 특징적인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6	인간에게 특징적인 능력을 식별하는 방식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 고유성, 본질성, 근본성의 기준은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갖는가?
2	완전주의는 객관적 목록 이론(objective list theory)에 대해 어떤 불만에서 출발하는가? 완전주의는 지식, 성취, 우정 같은 항목들이 왜 좋은지를 어떻게 설명하려 하는가?	7	완전주의에서 좋은 삶은 단순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Josh 와 Michelle 의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3	저자는 일상적 의미의 “완벽주의”와 복지 이론으로서의 “완전주의”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8	완전주의는 지식, 성취, 우정이 왜 우리에게 좋은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항목들은 인간 능력의 발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4	완전주의를 복지 이론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최종 가치 이론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이 구분은 왜 중요한가?	9	완전주의에 대한 “잘못된 속성” 반론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특징적인 능력이라는 기준이 왜 이상한 결론을 낳을 수 있는가?
5	완전주의가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설명이 평가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왜 제기되는가?	10	완전주의는 쾌락, 선호, 고통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Jack 과 James 의 사례, 그리고 고통의 문제는 완전주의에 어떤 부담을 주는가?

### 3 주차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11 Desire-fulfillment theory’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
| 1 | 욕구충족이론은 복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이론에서 어떤 것이 본래적으로 좋고, 어떤 것이 본래적으로 나쁜가?                                  | 6  | 도구적 욕구의 충족은 왜 그 자체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스키 여행과 산에 눈이 오는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 2 | 욕구의 강도는 욕구 충족이나 좌절의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욕구의 지속시간도 가치에 직접 관련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7  |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욕구는 욕구충족이론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체리 파이 알레르기 사례에서 이상화된 욕구 이론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
| 3 | 한 사람의 전체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할 때, 욕구충족이론은 어떤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 8  | 이상화된 욕구 이론은 왜 다시 문제에 빠질 수 있는가? 그리핀의 캐비아 사례는 어떤 점에서 ‘이상적 욕구’와 ‘실제 나의 복지’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가?       |
| 4 | 욕구충족이론은 왜 주관주의적 복지 이론으로 분류되는가? 객관적 목록 이론이나 완전주의와는 어떻게 다른가?                                      | 9  | 먼 곳의 사태나 사후의 사태에 대한 욕구는 욕구충족이론에 어떤 어려움을 제기하는가? 파핏의 낯선 사람 치료 사례는 왜 직관적으로 이상해 보이는가?            |
| 5 | 욕구충족이론을 지지하는 내재주의 논변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좋으려면 내가 그것에 끌리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왜 욕구충족이론을 뒷받침하는가? | 10 | 변화하는 욕구의 문제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스카이다이빙을 원했지만 현재는 원하지 않는 사례는 욕구충족이론이 어떤 시점의 욕구를 중시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문제 삼는가? |

#### 4 주차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12 Objective list theories’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1 객관적 목록 이론(objective list theory)은 복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건강, 우정, 쾌락, 성취, 지식 같은 항목들은 이 이론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 | 6 객관적 목록 이론은 쾌락주의에 대한 “너무 적은 복지재” 반론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노직의 경험 기계 사례는 이 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 2 저자는 왜 객관적 목록 이론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는가? 특히 “객관적 목록 이론”이라는 용어가 문헌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가?               | 7 객관적 목록 이론은 욕구충족이론에 대한 “너무 많은 복지재” 반론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우주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있기를 바라는 욕구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 3 객관적 목록 이론의 핵심 특징으로 제시되는 태도-독립성(attitude-independence)이란 무엇인가?                                  | 8 객관적 목록 이론이 자의적이라는 반론은 무엇인가? “왜 바로 이 항목들이 목록에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 이론에 어떤 부담을 주는가?                    |
| 4 객관적 목록 이론은 반드시 다원주의(pluralism)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자는 왜 이 점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가?                       | 9 객관적 목록 이론은 여러 복지재들의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쾌락과 지식, 우정과 성취를 비교하는 문제는 왜 어려운가?                    |
| 5 Finnis, Fletcher, Murphy, Parfit 이 제시한 객관적 목록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가? 이 목록들은 서로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     | 10 객관적 목록 이론에 대한 소외(alienation) 반론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좋다고 하면서도 내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왜 문제가 있어 보이는가? |

## 5 주차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13 Hybrid theories’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
| 1 | 혼합이론(hybrid theory)은 복지 이론에서 어떤 문제의식에서 등장하는가? 주관주의 이론과 객관주의 이론을 결합하려는 동기는 무엇인가?   | 6  | 저자는 혼합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복지의 구성요소”와 “복지를 설명하는 요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
| 2 | 저자는 주관주의 복지 이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단순한 욕구충족이론은 어떤 점에서 주관주의 이론의 대표 사례가 되는가?                | 7  | “좋은 것을 즐김(enjoying the good)”이라는 혼합이론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Adams 와 Kagan 의 입장은 이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
| 3 | 욕구충족이론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욕구할 수 있다”는 걱정은 무엇인가? Kraut 의 고드름 광신자 사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 8  | “좋은 것을 욕구하고 추구함”이라는 혼합이론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Raz 와 Kraut 의 입장은 단순한 욕구충족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
| 4 | 객관주의 이론은 욕구충족이론의 문제를 어떻게 피하려 하는가? 그러나 객관주의 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소외(alienation) 반론은 무엇인가?   | 9  | 공동 필요성(joint necessity) 모델에 대한 반론은 무엇인가? Hooker 의 사례는 왜 주관적 즐거움이나 객관적 성취 각각이 따로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가? |
| 5 | 주관-객관 혼합이론의 기본 구조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한 사람의 복지를 구성하려면 왜 주관적 관여와 객관적 좋음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는가?    | 10 | 저자는 혼합이론의 핵심을 공동 필요성이 아니라 전체론(holism)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전체론은 무엇이며, 왜 혼합이론의 가능성을 더 넓게 열어주는가?       |

## 6 주차

□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34 Welfarism’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p>1 저자는 복지(welfare)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 사람의 삶이 더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p>	<p>6 쉐의 조세와 고문 사례는 복지주의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는가? 저자는 왜 이 사례가 넓은 의미의 복지주의 전체를 반박하지는 못한다고 보는가?</p>
<p>2 복지주의(welfarism)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저자가 논의하는 의미에서 복지는 왜 “규범적으로 차이를 만드는 유일한 것”인가?</p>	<p>7 복지주의를 지지하는 계약 논변과 자비 논변은 각각 무엇인가? 저자는 왜 이 논변들이 복지주의를 강하게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보는가?</p>
<p>3 저자는 복지주의를 “복지가 유일한 가치”라는 주장과 구별한다. 왜 “복지가 유일한 가치”라는 말만으로는 복지주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가?</p>	<p>8 저자가 말하는 “복지주의자의 직관”은 무엇인가? 도덕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만 관심을 둔다는 생각은 왜 복지주의에 대한 강한 동기를 제공하는가?</p>
<p>4 쉐(Sen)과 섬너(Sumner)의 복지주의 정의는 왜 너무 좁다고 저자는 말하는가? 저자는 복지주의를 더 넓게 어떻게 정의하는가?</p>	<p>9 자율성에 근거한 복지주의 비판은 무엇인가?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은 왜 복지 자체가 아니라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정치적 목표로 삼으려 하는가?</p>
<p>5 저자가 제시하는 복지주의의 핵심 정의는 무엇인가? 도덕, 정치적 정의, 권리, 결과주의 각각에서 복지주의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p>	<p>10 적응된 선호와 타인-관련 선호는 복지주의에 각각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지배된 주부 사례와 화재 구조 사례는 복지주의자가 무엇을 설명해야 함을 보여주는가?</p>

## □ 발제문

- 발제문은 해당 주치의 읽기 자료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해야 한다.
-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글의 핵심 주장과 주요 논증 구조가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 글에서 중요한 개념, 구분, 사례, 반론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 저자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 저자의 입장이 다른 복지 이론들과 어떻게 연결되거나 대비되는지 간단히 언급할 수 있다.
-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 발제자는 발제문을 바탕으로 수업 참여자들이 해당 논문 또는 장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해야 한다.

### [예시] Weighing Reasons 발제

과학기술과 가치론 / 15 주차 / 홍길동

서론

#### 1) 규범적 이유와 속고

규범적 이유: 행위에 대한 규범적 이유는 사실(Facts)이며, 어떤 사실이 행위와 ‘규범적 지지’ 또는 ‘찬성 쪽으로 셈함’의 관계에 있을 때 행위의 (규범적) 이유가 된다.

실천적 속고: 여러 선택지들에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의 상대적 강도, 즉 ‘무게’를 비교하여 어떤 행위가 전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지지되는지 파악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 2) 단순한 그림

논의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단순한 그림’이다.

- 이유-관계는 방향(찬/반)과 크기를 가진다.
- 어떤 행위에 찬성하는 이유들의 무게와 반대하는 이유들의 무게는 상호 합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지지 강도가 결정된다.

충분한 이유: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행위도 이 행위보다 더 강하게 지지되지 않을 때, 그 행위의 이유는 충분하다.

결정적 이유: 해당 행위가 가장 강력하게 지지될 때, 그 행위의 이유는 결정적이며, 이때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당위적이다.

행위자는 반대 이유 대비 찬성 이유의 알짜값(net balance)이 가장 큰 행위(행할 이유가 가장 많은 행위)를 해야만 한다.

합리적 숙고: 이유들의 무게를 올바르게 측정하는 것.

합리적 행위: 충분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1~4 절은 이유의 ‘the weight’ 개념이 개선을 필요로 함을 논의한다.

5~6 절은 이유와 합리성 사이의 관계를 논의한다.

7~8 절은 무게로 압도하는(outweighing) 방식 외에 이유가 파기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 1. 파생적 이유

### 1) 당위의 개념적 구분

[사례] 임신한 아내가 정교한 시늉으로 진통이 온 것처럼 남편을 속였을 때, 남편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가?

주관적 당위: 행위자의 믿음, 가용 증거, 정당화된 믿음에 의존하는 당위.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진통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은 결함 있는 행위다.

객관적 당위: 행위자의 인자 여부와 독립적으로, 실제로 계산되는 객관적 사실들에 의해

결정되는 당위. 실제로, [사례]에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낭비일 뿐이므로, 남편이 진짜로 했어야 할 일이 아니다.

숙고의 관심사는 ‘객관적 이유에 의해 실제로 지지되는 행위’이므로, 이 글의 논의는 객관적 당위에 초점을 맞춘다.

## 2) 독립적 무게 담지자와 일상적 이유 담론의 화용론

중복 계산의 문제: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을 때, 그 이유가

(i)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사실’, (ii) ‘병원이 출산을 위한 안전한 환경이라는 사실’, (iii) ‘아내가 남편의 이동 수단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각을 별개의 독립적인 이유들로 계산하여 그 무게를 더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이유가 “그것이 아내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는 것을 보장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i)~(iii)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이유라는 것을 거짓으로 만든다.

Lewis(1986)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원인’을 말할 때 우리는 거대한 인과 메커니즘 중 대화

맥락의 화용론에 따라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만을 골라내어 말한다.

(예를 들어, 산불의 ‘원인’을 말할 때 산소의 존재나 연소의 조건들 등을 모두 말하지 않고, 그 대신 그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누군가가 담배꽂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렸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짚으며, 이러한 원인 식별 방식은 적절하다.)

규범적 담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이유로 드는 이유-담화는 거짓이 아니다. 단지, 그 사실이 더 큰 규범적-무게-담지 사실과 맺는 관계에 의해 참이 된다.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무게를 갖지 않으며, 더 근본적인

사실(아내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는 것을 보장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라는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실로부터 파생된 이유-부여 무게를 갖는다.

파생된 이유들은 무게를 갖지만, 그 무게는 그것이 파생되어 나온 원천이 되는 이유의 무게에 더해지지 않으며, 같은 원천에서 파생된 다른 이유들에도 더할 수 없다.

## 2. 전체론

### 1) 전체론의 두 가지 논제와 파생적 이유

더 큰 전체 안에서 구성 성분들의 무게가 전반적인 무게에 기여하는 방식을 다룰 때, '전체론'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논제를 의미할 수 있다.

비-합성성 논제: 전체의 전반적인 무게가 항상 그 부분들의 무게의 합인 것은 아니다.

상황-상대성 논제: 무게-담지자의 무게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상황 집합의 나머지 조건들에 의존하여 변할 수 있다.

파생적 이유는 위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 전체론적이다.

합리적 속고: 속고는 (i) 속고하는 행위 자체가 합리적이고, (ii) 그것이 이유들에 대한 속고일 때 그 무게들의 증거에 비-우연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는 한 합리적이다.

이하 생략 ...

\* 보통 10 쪽 논문의 발제문은 10 쪽 분량으로 정리됩니다.

□ 논평문

- 논평문은 발제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 단순한 감상이나 요약이 아니라, 발제문 또는 원문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 저자의 주장이나 논증에서 설득력 있는 부분과 의문스러운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 논증의 전제, 사례, 결론 사이의 관계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 반례, 추가 질문, 다른 이론과의 비교 등을 통해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 반드시 완성된 반박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수업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명한 질문이나 문제제기를 포함해야 한다.
- 논평자는 자신의 논평을 바탕으로 발제자와 수업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논점을 제시해야 한다.

[예시] 논평 제목: 주체의존성은 웰빙 이론의 충분한 기준인가?

이 글의 가장 큰 장점은 웰빙의 주체상대성을 잘 포착한다는 점이다. 웰빙은 단순히 좋은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묻는 개념이다. 따라서 저자들이 주관주의와 주체의존성을 구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어떤 이론은 욕구나 삶의 만족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개인의 성향, 가치, 정서, 능력에 민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주체의존성이라는 범주는 기존의 주관주의/객관주의 구분보다 더 섬세한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입장에는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주체의존성이라는 범주가 너무 넓어지는 것은 아닌가? 저자들은 웰빙이 개인의 태도뿐 아니라 가치, 정서적 본성, 능력, 기질 등에 의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거의 모든 그럴듯한 웰빙 이론이 어느 정도는 주체의존 이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전주의도 개인의 능력과 발달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말할 수 있고, 객관적 목록

이론도 각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감정, 성취, 지식 등을 실현하는지에 민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체의존 이론은 정말로 독립적인 이론적 범주인가, 아니면 여러 이론들이 공유하는 일반적 요구사항인가?

둘째, “그 사람에게 맞는다”는 생각은 더 명확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저자들은 Rosati 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 개념을 언급하면서, 어떤 것이 한 사람에게 좋으려면 그 사람의 개별적 본성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이 한 사람에게 “맞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어떤 학생이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철학 공부 때문에 계속 불행하고 좌절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철학은 그 학생의 가치에는 맞지만 정서적 본성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어떤 활동은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지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여러 측면이 충돌할 때 무엇이 진짜 그 사람에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주체의존 이론은 적응된 선호나 왜곡된 가치의 문제를 완전히 피하지 못할 수 있다. Sumner 는 정보와 자율성 조건을 통해 왜곡된 삶의 만족을 걸러내려 하고, Tiberius 와 Raibley 는 더 안정적이고 반성적인 가치에 호소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가치 자체가 억압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을 경우, 그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좁은 선택지 안에서 특정 삶을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면,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왜곡된 가치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주관주의 이론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주체의존 이론에도 남아 있는 부담으로 보인다.

넷째, Haybron 이나 Kraut 처럼 태도 이외의 요소를 강조하는 이론은 다시 객관주의에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Haybron 은 정서적 본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Kraut 는 능력의 발달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서적 본성이나 능력 발달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 입장은 주관주의와 달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소외 반론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의는 매우 유익하지만, 주체의존성만으로 웰빙 이론의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주체의존 이론이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한 사람의 여러 특성 중

어떤 것이 웰빙 판단에서 우선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욕구, 가치, 정서적 본성, 능력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더 분명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완성된 웰빙 이론을 제시한다기보다, 좋은 웰빙 이론이 반드시 답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